

GIST 류동렬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 최고 권위 '사석상' 수상

- 생명현상의 정밀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외 산학연 협력 이끌며 실질적 치료 전략 개발 주도... 생명현상의 분자적 규명부터 치료 기술 실용화까지 탁월한 성과 일궈
- SCIE급 논문 150여 편 발표(논문당 평균 인용 100회 이상)...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등재 및 세계 상위 2% 과학자 3년 연속 선정으로 국제적 위상 입증



▲ GIST 의생명공학과 류동렬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의생명공학과 류동렬 교수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 연맹(FAOBMB) 학술대회' 및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 정기학술대회'에서 2025년도 사석상(思石賞; Sasuk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석상은 2019년 함경수 전임 회장의 뜻에 따라 제정된 상으로, 창의적 연구 역량이 뛰어난 젊은 생명과학자를 격려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는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여하는 상 가운데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류 교수는 노화 생물학과 대사질환의 분자적 병태생리를 규명하고 건강노화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근감소증 치료제 및 건강노화 유도 기술로의 응용을 통해 학술·실용 양면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SCIE급 국제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논문당 평균 인용 횟수는 약 100회 이상(2025년 5월 기준)이다.

또한 10여 건의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연구 측면에서의 학문적 기여를 넘어 실용화 가능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류 교수는 2022년 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Clarivate Analytics)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로 등재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스탠퍼드대와 글로벌 학술정보 분석기업 엘스비어(Elsevier)가 선정한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으로 연구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류 교수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ARPA-H' 제1기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멀티모달 통합 연구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다.

해당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주요 질환인 근감소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산학연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류 교수는 "이번 수상은 GIST 연구실의 우수한 구성원들과 국내외 협력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규명하고, 실질적인 치료 전략 개발으로 연결하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